



#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

**조문희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 
무역협정팀장  
mhcho@kiep.go.kr, 044-414-1200

**배찬권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 
ckbae@kiep.go.kr, 044-414-1208

**김영귀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
ygkim@kiep.go.kr, 044-414-1188

**금혜윤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 
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 
hykeum@kiep.go.kr, 044-414-1205

**엄준현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 
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 
jheom@kiep.go.kr, 044-414-1149



## 차 례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2. 조사 및 분석 결과
3. 정책 제언

## 주요 내용

- ▶ 2019년은 한·칠레 FTA 체결 이후 15년이 되는 해이고 한·미 FTA, 한·EU FTA, 한·아세안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된 지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임.
  - 신규 FTA 협상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을 대비하여 FTA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, 즉 △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△상품시장 개방 성과 △해외직접투자 성과 △제도적 성과를 살펴봄.
- ▶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의 성과를 보면, 그동안 적극적인 FTA 추진에 힘입어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, 최근 주요 경쟁국들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FTA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은 다소 약화되는 모습임.
- ▶ FTA는 우리나라 교역 및 교역 품목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.
  - FTA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수출관세율 인하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
- ▶ FTA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(FDI)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됨.
  -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(OFDI)를 모두 증가시켰으나, 외국인직접투자(IFDI)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.
  -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.
- ▶ FTA를 통해 국내제도 간소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등의 제도적 성과를 달성했음.
  - 공정거래법이 FTA에서의 합의에 따라 개정되어 동의를결제가 도입됨으로써,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조사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.
  - 상표법도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어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가 허용되었음.
- ▶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△개도국과의 신규 FTA 체결 및 개선협상 추진 △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업애로사항의 효율적인 반영 △상호간의 경제협력력을 강화하는 신무역협정 로드맵 마련 △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품목다변화 추진 △소비자들의 FTA 체감도 제고 △포용적 통상을 위한 정책 강화 등을 제시함.

## 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우리나라는 2019년 현재 칠레, EFTA, 아세안, EU, 미국, 중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음.
  - 한·중·일, 메르코수르 등 신규 FTA 추진과 더불어 이미 발효 중인 인도, 칠레 등과의 FTA 개정협상도 진행 중임.
  -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은 2004년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가 발효된 이래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미국, EU, 아세안, 중국 등 주요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
  - 대부분의 FTA에서 높은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고,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상이슈를 협정문에 포함하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
- 2019년은 한·칠레 FTA 체결 이후 15년이 되는 해이고 한·미 FTA, 한·EU FTA, 한·아세안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된 지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에 향후 신규 FTA 협상전략 마련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을 대비하여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.
-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.<sup>1)</sup>
  - 첫째, '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 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'하기 위함임.
  - 둘째, '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, 능동적인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'하기 위해서임.
-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,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, 상품시장 개방 성과, 해외직접투자 성과, 제도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.
  - 미·중 통상분쟁, 일본의 수출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인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던 FTA의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.

1) 산업통상자원부(2014), <http://www.fta.go.kr/main/situation/kfta/psum/>.

## 2. 조사 및 분석 결과

### 1)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

-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 RTA 연결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
  - 주요 수출경쟁국들 중 교역액을 가중치로 고려한 연결중심성에서는 독일, 미국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, 중국, 캐나다가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을 갖고 있음.
  - 매개중심성의 경우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2010~16년 기간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으나, FTA 상대국과의 교역규모가 제한적이고 CP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.
  - 교역규모를 고려한 고유벡터중심성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

### 2) 상품시장 개방 성과

-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,707억 달러에서 2018년 4,386억 달러로 증가<sup>2)</sup>
  -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대FTA 체결국 수출은 연평균 약 7%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%보다 높았으며,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비중 역시 67%에서 73%로 확대
- 수입의 경우 2004년 1,217억 달러에서 2018년 3,346억 달러까지 증가
  -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약 8%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증가율인 5%보다 더 높았으며,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%에서 63%로 증가
- 국가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액 및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
  -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.

2) 2019년 10월 1일 한·중미 FTA가 발효되어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6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나, 본 실증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2002년부터 2018년까지로 설정하였기에 15건의 FTA를 분석대상으로 함.

-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개국으로 수출상대국이 증가하였으며,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를 보면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
- 농림수산물식품업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, 실증분석에서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비관세조치 관련 조항 중 경쟁과 표준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때 유의하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.
- 섬유·의복·가죽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액 및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품목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고, FTA 체결이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.
  -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,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.
- 전자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이 전자산업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결과는 얻지 못함.
  - 기계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며,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.
  - 자동차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, FTA 체결이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- 수출입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수출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관세율이 낮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수출특화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
  - 수입특화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.

### 3) 해외직접투자 성과

-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,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(OFDI)는 2017년 3,396억 달러로 약 6배 증가
  -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2017년 기준 82%에 이르며, 연평균 성장률도 FTA 미체결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(IFDI)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,119억 달러로 증가
  - 우리나라에 대한 3대 투자국은 일본, 미국, 네덜란드이며,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FTA가 발효 중인 국가들임.
  - 2010년까지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%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
-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.
  -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(OFDI)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(IFDI)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됨.
  -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.

### 4) 제도적 성과

- 우리나라가 FTA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대표 사례를 검토하였음.
- 첫 번째 대표사례는 「대외무역법」 개정이며 기대효과는 한·미 규제 조화였음.
- 두 번째 대표사례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개정이며 제도 간소화가 목적이었음.
  - 구체적으로는 동의를결제를 도입한 것인데,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함으로써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함.
- 세 번째 대표사례는 「우체국 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 개정이며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가 목적이었음.
  - 미국이 비준을 추진 중인 USMCA는 물론, CPTPP에서도 공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할 때,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.

- 네 번째 대표사례는 「외국법자문사법」 개정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음.
  - 아직은 경쟁활성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.
- 다섯 번째 대표사례는 「상표법」 개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목적이었음.
  - 소리상표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졌으며, 실제로 적지 않은 신청이 접수되어 상표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음.

### 3. 정책 제언

-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대국을 발굴해 FTA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,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함.
  - 개방을 통한 혁신과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통한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의 지속적인 FTA 추진으로 교역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.
  -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, 이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흥개도국에 초점을 맞춰 FTA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.
  - 최근 미·중 통상분쟁, 일본의 수출규제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국, 중국,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FTA 추진이 필요
  - 통상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는 FTA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통상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.
- 그동안 업계,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FTA 이행위원회나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.
  - 기체결 FTA 중에서 개방수준이 낮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체결 FTA의 양허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  -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된 업계 애로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, 정리하여 FTA 협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여야 함.

- **신무역협정 로드맵에는 과거 FTA 로드맵에 담았던 것과 같이 신규 FTA 추진대상국을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담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 등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무역협정전략을 담아야 할 것임.**
  - 신무역협정 로드맵에는 신흥 개도국과의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새로운 FTA 추진전략을 포함해야 할 것임.
  - 복수국간 협정, 메가 FTA 및 양자 FTA 정책의 호환성을 고려하고 ODA 정책, 개도국 투자정책,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.
  
- **우리나라는 소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해외 수요 및 기술 변화 등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.**
  - 높은 품목 의존도의 배경에는 높은 대기업 수출 의존도가 자리잡고 있으며,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
  - 향후 무역협정에는 관세감축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.
  
- **향후 FTA의 소비자후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, 수입품목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, 수입활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**
  - FTA가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로는 수입품목의 가격하락과 다양성 증가임.
  - 본 연구에서 발견한 다양성 개선효과는 실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FTA로 인한 체감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.
  
- **FTA 정책이 전반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FTA 혜택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사회불평등이 커질 수 있기에 포용적 통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함.**
  - FTA 정책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,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포함하여야 함.
  - 미래 유망산업으로 노동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역시 중요
  
- **FTA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**
  - 제도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 내부의 노력이 부처 사이의 이견과 반대여론으로 정체되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FTA가 제도 개선을 위한 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음.
  - 제도 개선의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
  - 제도 개선의 효과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인접 분야 또는 다른 분야에서의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.

●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

- 향후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해외투자를 서비스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.
- 경쟁력이 높은 분야일수록 해외투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에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. **KIEP**